

한국어 교육 자료의 현지화에 대한 추가 논의

-필리핀 온라인 한국어 수업 교육 자료 개발을 중심으로-

이은경(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진행한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 작업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정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을 통해 ‘한국어 교재의 현지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현지의 교육과정, 현지의 교수-학습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 등)와 현지화해야 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과 그 결과물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향후 각 지역에 맞는 교재를 개발할 때 중요한 점검 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픽셀 튀르키즈 선생님께서는 한국어 교육 자료 현지화의 예를 튀르키예의 경우를 통해 제시하셨는데, 그 중 인명이나 지명에 관한 표기법의 문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해외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어의 높임법과 양국의 비교를 통한 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비단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외 연구자들을 통해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재의 현지화에서 ‘무엇을’에 이어 ‘어떻게’ 현지화할 것인가는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수업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되고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수업 자료의 전자화나 영상 자료의 활용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필리핀 지역 온라인 한국어 교육 자료의 현지화 사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1. 필리핀 지역 한국어 교육 자료의 현지화를 위한 고려 요소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는 지난 2022년 봄학기에 필리핀 이나레스 지역의 한 교회와 연합하여 현지 청소년(15세~18세)과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줌(ZOOM)을 기반한 실시간 한국어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주교재는 세종학당재단의 ‘사이버한국어초급’을 사용했고 교육 자료는 교사진들이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기관의 대표와 미팅을 통해 현지 상황과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전해 들었고 학습자들의 만나면서 수업 자료를 보완해 갔습니다. 자료 제작 시 고려한 점은 학습자들의 연령과 한국에 대한 이해 정도, 그리고 현지의 인터넷 상황과 그들에게 친근한 매체, 온라인 수업 환경, 학습 목적과 종교 등이었습니다.

10~20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글 자모를 노래와 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였고 단어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익힐 수 있는 영상도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포함된 워크북을 PPT형식으로 만들고 이북(e-book)¹⁾으로 제작하여 학습자들이 주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글 읽기가 끝난 후 노래를 통해 한글을 익히게 했는데 학습자들의 종교와 학습 목적(한국인 선교팀과 대화하는 것)를 고려하여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중 젊은이들의 감성에 맞게 신나는 곡을 골라 수업

1) ‘FLIPHTML5’를 통해 제작함.

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수업 자료는 학습자들을 수업에 집중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 필리핀 지역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례

1) 복습을 위한 워크북(e-book) 제작

자음(Consonant) 1

	ㄱ	ㅋ	ㆁ	ㄷ	ㅌ	ㄴ	ㄷ	ㄹ	ㄱ	ㅋ
ㄱ	가	거	고	구	그	기	개	게	괴	귀
ㄴ	나	너	노	누	느	니	내	네	뇌	뉴
ㄷ	다	더	도	두	드	디	대	데	되	뒤
ㄹ	라	러	로	루	르	리	래	레	뢰	뤼
ㅁ	마	머	모	무	므	미	매	메	뫼	뫼
ㅂ	바	버	보	부	브	비	배	베	뵤	뵤
ㅅ	사	서	소	수	스	시	새	세	쇠	쉬
ㅈ	자	저	조	주	즈	지	재	제	죄	쥬

2) 한글 및 단어 연습을 위한 노래/랩 유튜브 영상 제작

3) 학습자들의 종교 및 학습 목적을 고려한 학습용 노래 선정

종으신 하나님

LORD YOU ARE GOOD

인자와 자비 영원히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3. 한국어 교육 자료의 현지화에 대한 제고

한국어 교재나 교육 자료의 현지화에 대한 논의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자료를 어떤 형태로 가공해서 전달할 것인가’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재와 교육 자료는 학습 동기나 수업 참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현지 학습자들의 문화와 연령, 그들에게 익숙한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 문헌>

- 권용혜(2021), 현지화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항목 연구 - 미얀마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 반교어문연구 58, 반교어문학회, pp. 355-387.
- 김성희(2021), 필리핀 중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 필리핀 중등학교 현지인 한국어 교사 인식을 중심으로 -, 이중언어학 85, 이중언어학회, pp. 53-80.